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모두 발언문  
서울글로벌센터  
2017년 7월 21일 오후 2시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서 5 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방문 후 일 년이 채 되지 않았습디만, 두번째 공식 방한에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한 준비에 도움을 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5월 대한민국에서 대선이 치뤄진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와중에 방한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구성된 행정부에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통일연구원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도 만났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에 방문해, 관계자 및 탈북민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도 만났습니다. 그 밖에도 방한 기간동안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학계, 전현직 외교 인사를 만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접할 수 있었고, 이는 북 인권 문제를 두고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방증입니다.

지난 몇 달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 행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며,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이번 주 군사 및 인도주의 협력 분야 대화를 재개하고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두 개의 큰 축을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지난 이 년 여간 단절된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한편, 유엔 제재 조치 및 기타 국제 메커니즘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압박하여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려는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참여(engagement)할 수 있는 기회가 대한민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근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 방문을 허용했으며, 여성 및 아동 인권 관련 유엔 위원회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해당국 밖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 2 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에서 수용한 여러 권고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진전을 환영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독려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 현장에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길 기대합니다.

특히 남측이 북측과 대화를 추진하고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를 환영합니다. 지난 몇 달 간 양측 간 고조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다행스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는 지난 4 월에 분쟁을 시사하는 수사(conflict rhetoric)를 중단하도록 양측에 촉구하였는데, 저의 요청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양 국가 간 장기적인 평화, 안보, 인도주의 협력을 위해서 북측이 문재인 대통령 제안(initiative)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화해의 정책에 인권 보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가 접한 정보에 따르면 여러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북 주민의 삶에, 심지어는 외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강제 실종 의심 건을 살피도록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적자 오토 웬비어는 평양에 위치한 구금 시설(prison)에서 혼수상태로 풀려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며, 북측 내 구금되어 있는 이들이 영사 접견이나 법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초래되는 심각한 결과를 상기해줍니다.

방한 동안 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온 남성과 여성 탈북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믿고, 자유를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온 이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난해 북쪽 지방이 홍수로 피해를 입은 상황 등 북측 내 최근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경향과 일치하는 이야기도 탈북민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패가 만연하여 국내외

여행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또는 치료를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에도 정부 관계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체류 중 강제 복송된 북 주민은 일반적으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교화 시설로 보내지고 강제노동형을 선고 받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려는 의도로 탈북을 했다고 파악된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알려줍니다. 다섯 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운영 중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여성은 복송된 경우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됩니다. 중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집결소에서 여전히 알몸 수색, 체강 검사, 언어 학대, 성폭력 등이 자행된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면 당연스레 정부 관계자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향후 책임 규명 논의가 확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 규명을 논의할 때, 형사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로만 한정해서는 안됩니다. 북 주민 모두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해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피는 더 큰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곳 대한민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만난 관계자는 국제 제재 조치와 국가별 제재 조치가 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또한 인권 보호를 고려하여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탈북민은 북 정권이 평양 등지에서 대한민국 콘텐츠가 담긴 시청각 자료를 근래에 단속한 사례를 들려주었고, 과거보다 더 많은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수도 평양과 평양 외 지방 간 생활 수준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있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문제는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가 부재하고, 여행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더욱 해결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잡힌 북 주민이 구금되고 강제 복송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에도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성인 뿐 아니라 동행자가 없는

아동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미 북송된 사례도 있고, 현재 중국에 구금되어 북송이 임박한 사례도 있습니다. 탈북한 많은 이들은 북에 가족에 남겨두었습니다. 관련하여 지난 몇 달간 중국 당국에 우려를 표명했고, 1951년 채택된 난민 협약 및 기타 관련 유엔 시스템 하에서 중국 당국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중국 영토를 거쳐 이동하는 북 주민을 보호하도록 중국에 촉구합니다. 북을 떠난 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한국전쟁으로 초래된 헤어짐의 양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남북 양측은 가족 이산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 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12 명의 식당 종업원 사례에도 주목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식당 종업원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식당 종업원을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였는데, 북측에서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한 기간 중 여러 관계자를 만나 식당 종업원과 관련하여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들이 안전하며 구금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한편, 이들 사례와 관련하여 일부 설명이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정부와 해당 사안을 계속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남북 양측에 이들 여성 사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이들의 이익과 안전, 그리고 가족의 요구에만 집중하길 촉구합니다.

금번 방한과, 지난 일 년 여 간의 모니터링 및 옹호 활동 내용을 금년 10월에 예정된 유엔 총회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0월이 되기 전에 남북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여부에 합의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나뉜 남북 양측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라는 수 천명의 권리를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및 국제 사회 관계자와 인권 대화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대화에 나서, 앞서 언급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하길 고대합니다. 근 시일 내에 이 지역에 다시 방문할 계획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방문하길 희망합니다. 주변 국가 방문도 희망하는 바입니다. 변화를 향한 기대가 큰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당사자 모두에게, 어떤 의제가 되었든 인권이 그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